발행인 박술음
편집인 이강혁
주간 석일균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대신문사
우편번호 131
TEL 7128(직통)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 우편물 인가)
(등록 번호 제다253호)

제227호 <격주간> 1976년 11월1일 발행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여문초점

대학 4년의 긴 여정(旅程)을 끝내고 사회에의 길을떠나려는 4학년생들의 발길음은 학생처 게시판앞에서붐비기만한다. 학점절대주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전학년 성적 B이상」이라는 엄격한 자격요건에서서글픈 감상(感傷)을 맛보며 대학초년생일때의 구름잡는식의 사고방식과 현재의 앞궂은 현실 갈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아쉬움과 기대감을 간직한채 계절을 감지할 수 있게한다.

<학생처앞 게시판>

어학실력과시, 취직률 높아

특수외국어는 취업후 활용성커
추천의 경우 거의 면접만으로
대부분 무역업계로 풍성한 진출

○…내년 졸업을 앞두고 학생처의 취직창구는 신규사원을 뽑기위한 각 기업체의 추천의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경향이차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따르면 무역계통의 업체가 취업희망자들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으며, 추천의뢰 업체 (10월말현재 70여건) 도 대부분이 무역계통이어서 무역업체로의 취업이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77년도 졸업 예정자 취직경향

근래에 일기 시작한 호경기로 각기업의 신규채용이 활발해 금년도 취업희망자 400여명 가운데 3분의1가량이 이미 취업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의뢰를 한 70여개 업체중 50여개 업체가 면접을 통해 신규채용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도 대부분 영어회화시험등의 간단한 시험만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말미암아 취직에 있어서 학교성적—학점—의 영향력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대기업체로 몰려

근년에 들어 대기업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이 늘고있지만 아직까지 대기업으로 몰리는 경향이 현저하다. 이런경우 자신의 개성을 무시한채「남의 이목」만을 의식해서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의 이직율이 상당히 높다고 학생처의 한 취업관계 담당자는 말하고 있다.

여러 곳에 응시

올해에는 정부의 방침으로 취직시험이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됨으로써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초조한 마음에서 여러 곳에 응시하는 경향이 매우 심해 심지어는 5개 회사에 합격한 학생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중복합격은 의외로 심각한 난제를 가져와 동료들의 취업을 막을뿐만 아니라 합격을 하고 나가지 않는 회사에게는 좋지 못한 불신인상을 주게되어 그 다음해부터는 추천의뢰를 안해오게될 염려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작년까지 매년 추천의뢰를 보내오던 L그룹은 이러한 이유로 올해에는 추천의뢰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영어와 부전공으로 취직하는 경향 커

특수외국어를 활용하여 취직하는 예는 다소 주춤한 감이 있어 영어와 부전공으로 취직을 하는 학생이 대부분인데, 추천의뢰도 거의학과의 구별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들이 외국어 실력을 갖춘 이들을 많이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있어서 입사후에 활용할수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본대학 졸업생의 어학실력을 타대학출신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학생의 취직열높아

학생처에 제출된 진로희망조사서에 의하면 여학생 취업희망자가 매년 급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학생들에 대한 추천의뢰는 극히 드물어 여학생 취업률은 저조한 상태에 있다.

또한 교육학부의 취업희망자들의 경우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적고 대부분 일반기업체로 취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고등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의 후퇴현상으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한다.

초봉 9~12만원선

대부분의 취업희망자들이급여보다는 장래성등을 고려하는 건실한 안목으로 취업을 하고 있지만 급여는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를 차지한다. 역시 대기업들의 급여수준이 높고 보험회사등이 근래에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종전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은행의 경우도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업정보에 밝아야

겉보기에는 일류회사이나실제로는 대우수준이 인색한기업들도 상당히 많다. 3명의 추천의뢰를 해온D통상의 경우 기업조사총록등에의한 자료상으로는 일류회사이나 입사결과 가족중심의 중개인 회사로 대우가 수준이하인것이 밝혀져 3명이 모두 입사한달만에이직을했다.

D통상에는 외대 출신 졸업생이 1명 근무하고 있어서 사전에 제보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막을수 있었을 것으로 졸업생들과 취업담당자간의 활발한 기업정보·교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현재 학생처와 각학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취업창구를 일원화하여 강력하고도 신속 적절한 취업지도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한다.

한편 대기업체의 신규채용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지금은 중소기업의 추천의뢰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영기업체및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12월이후에 신규채용이 있을예정이라 하는데 예년의 경우보다 약 한달 늦은 1월경에 취업이 마무리 될것으로 한취업담당자는전망하고있다.

제4회 중동문제 세미나
주제:「한국과 아라비아의 관계」

본대학부설 중동문제연구소 (소장·유정렬 교수) 에서는 지난 10월27일 오후2시 제3교사 203호실에서 제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용선 아랍어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세미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상수교수가「한국과 아라비아의 역사적 혈연적관계」라는 주제로 11세기부터 시작된 아라비아 상인의 고려국내항으로 기인한 아라비아와의 교역역사와 13세기의 고려와 원왕조의 혼인정책에 따라 잦았던 아라비아인의 고려귀화가운데 덕수 장씨의 세보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라비아와의 혈연적 관계와 계속적인 아라비아와의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영어수필대회
장원에이병기(D·3)군

지난 9월30일 개최된 제1회 영어수필경연대회의 입상자가 발표되었다.

88명이 참가하여 겨룬 이번대회의 장원은 이병기 (D·3) 군, 2위에는 병경희(I·3) 양, 3위는 임종학 (MI·1)군과 함호영 (E·3) 군이 각각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김현택 (R·3) 군등5명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 대회의 장원에는 10만원, 2위에는 7만원, 3위에는 5만원, 장려상엔 각각 2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입선작품은 본대학 영자신문<디 아거스>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슬람교를 주제로 특별강연회개최

아랍어과에서는 10월21일오전11시 제2교사 212호실에서「아랍문화에 끼친 이슬람교의영향」이란 주제의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12주년기념행사
「외대 산악반」

「외대 산악반」은 지난 10월 23일 창설 12주년을 맞아 이강혁 학생처장, 안영호 산악반지도교수, 허세욱외국어학부장을 비롯한 관계교수및 재학생, 졸업생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근교 수락산 밤나무골에서 기념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 기념등반대회는 23일밤의 전야제등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병영 집체훈련 실시
11월10일~19일, 문무대에서

대학생의 전력화로 국가방위력을 증대하고 전시 동원체제확립과 지도적 인격도야및 심신단련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금년부터 1학년 교련 피교육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병영집체훈련에 본대학의 해당학생 전원이 11월10일부터 19일가지 문무대에 입영하여 소정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

병영집체훈련중에 준수해야할 제규정사항에 따르면 장발자, 환자, 휴대품 미소지자 대리입영자등에게는 입소를 불허케 되며 불참자에게는 내년에 재입영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피교육학생들의 복장, 준비물, 두발등 전체점검을 대학자체에서 6일 실시하는데, 불합격한 학생은 8일 재점검을 받아야 하며 11월9일 최종점검을 거쳐야 한다.

한편 학도호국단은 위문단은 위문단을 편성, 11월15일 훈련받는 학생들을 방문하여 병영생활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울러 사기를 높이 북돋아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일 안보 연수교육
본대학 50명참가

학도호국단 부서간부등 본대학생 50명은 지난 10월12, 13양일간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소에서 통일 안보 연수교육을 받았다.

국토통일원이 주최한 이번 교육에서 입소자들은 강연회 영화관람 토론회등을 통해통일의 절대적인 중요성과 민족적인 사명감을 재인식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유상근국토통일원장관과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대화를 가져 거리낌없는 의견을 교환했다.

가을 학술 발표회 개최
한국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회

한국 영어영문학회 1976년도 가을 학술 발표회가 10월23일 오후1시 제1교사 101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명석부교수 (영어과) 의「문화적차이에 기인한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김종운 (서울대) 교수의「솔·벨로우의 매달린 인간과 이상의 날개」등 모두 7명이 주제발표를했다.

한편 이날 제2교사 301호실에서는 오후2시부터 한국불어불문학회의 1976년도 연구발표회가 열려 김치수 (부산대) 교수의「미셸 비토르의 작품구조에 대하여」등 3명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서강대학교 초청 친선체육대회 개최

◇서강대초청 친선체육대회에서 선수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학도호국단 주최 서강대학교초청 친선체육대회가 10월27일 오후2시 본대학운동장에서 양교의 학생및 교직원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외적인 운동부가없는 양대학이 순수한 아마튜어스포츠의 교류를 통해 우의를돈독히 하고 애교심을 함양하며 건전한 대학생활의 기풍을 닦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친선체육대회는 금년에 본대학이 주관하여 축구, 야구의 2종목에 걸쳐 경기를벌였다.

경기에 앞서 박술음학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대회가 여러모로 비슷한 성격을 띠고 성장발전하는 양대학의친선과 유대를 굳건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스포츠정신에 입각하여 선전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며서강대학교 최상업부총장은 축사에서『양대학은 앞으로 체육경기의 교환만이 아니라 이를계기로 학술적인 교류에까지 발전하기를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거행된 경기에서 본대학은 야구에서 6:5로 서강대팀을 물리쳤고 축구에서는 1:0으로 패했으나 짧은 연습기간에도불구하고 본대학 야구팀은 선전하여 응원단을 열광시켰다.

3회초 서강대팀에 집중2안타와 실책등으로 2점을선제당했으나 3회말 2안타로 1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4회초 다시 1점을 허용, 전세는 굳어지는가 했으나 5회말공격에서 본대학팀의 집중포화가 터져 4번타자 전명통 (C·2) 군의 좌중간을 뚫는 통쾌한 2루타등 3안타와 서강대팀의 실책등을묶어 대거 5점을 올림으로써 7회초 추격전에서 2점만회에 그친 서강대팀을 6:5로 제압했다.

축구경기에서는 시종 열띤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후반22분경 서강대팀이 결승점을 올려 1:0으로 승리했다.

한편 본대학 홍순태교수는『이번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매년 양교가 번갈아가며 친선체육대회를 주최하고 경기종목등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말하고 본대학은 대외적인 운동부를 창설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계속하여 순수아마튜어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외무고시 2차에 4명 합격
유정희 (F·4)군은 최연소로

10월27일 총무처가 발표한 제10회 외무고등고시 2차합격자에 본대학은 유정희 (F4) 군 (최연소자) 김광근 (S4) 군, 김종일 (프랑스어과76년졸업) 동문, 석동연 (힌디과76년졸업) 동문등 4명이 합격했다.

그동안 외무고등고시에서는 본대학 출신들이 상당수 합격해 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유정희군이 최연소 (만21세) 합격, 김광근군이 재학생으로 합격하는등 두각을나타냈다. 어학이 절대적인 비중을차지하고있는 외무고등고시에는 어학 실력에있어 타대학의추종을 불허하는 본대학의 특성위에 본대학생들이 외무고시연구실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쌓아온보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

멤버쉽트레이닝
10월23일,「호우반」

원호장학생으로 구성된 호우반 회원들의 멤버쉽·트레이닝이 10월23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마석 수동교육장에서 열렸다.

파이어과 이교충지도교수의 인솔로 회원들의 친목과 임원개선을위한 정기총회를 갖기위해 열린 이번 트레이닝에서는 이강혁학생처장이 연사로 초청되어「민족형성과국가관」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했으며 논문발표와 토론등의 일과로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문 크로니클

범세계적「전람회」

○…요사이 학내에는 이색적인 미술감상(?)붐이 일고 있는데, 다름아닌 48족의 동양화와 52족 서양화의 범세계적인「미술전람회」심심찮게 금전이 오가며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심지어는 책상으로 출입문을 막은 강의실에서도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오락도 하나의 점잖은 예술」이라는 어느 어르신네의 말씀에 따르는 것도 분명 아닐테고, 무슨 짓들이오.

그렇다면 축제때 실패한「킹카(King card) 획득작전」에 대한 야릇한 향수가 급기야는 카드에서라도 성공해 보겠다는 애절한 절규로 변한 것인가?

○…양지, 음지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요, 선과 악도 상대성에서 성립되는 개념상의 문제렸다. 호민들을 생각하니까 맑은들이 있게 마련인데, 맑고쾌적한 분위기의 강당도 먹구름의 그늘을 겪어서 하는 말.

엄숙하고 조용한시험분위기에 그늘의부정행위란 먹구름을어떻게 해야 씻어낼고? 은바다를을 흐려놓는 미꾸라지의 생태는 갯바닥을 오비오비 파고드는 배일성(背日性)때문이라. 청명한 하늘을 우러러가며 사시오.

○…수위실옆 공중전화가 외대인들의 긴급한 용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는 바.

그런데 이 전화통이 가끔 엉뚱한 짓을 잘해서 골치, 워낙 남아 만신창이의 모습에 동전을 넣어 신호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통화시간보다 긴 경우는허다하고, 게다가 가끔 엉뚱한 곳을 대어주어 무안을주는 것은 물론공돈을 골쳐 삼키고는 묵묵부답.

교외 (校外) 공중전화박스 만큼 깨끗이하거나 수를 증설하여 편리는 주지 못할 망정 안그래도 빈한의 대생들의 주머니를 털어서야 되겠소.

○…찬바람이 불자 1학년 학생들의 중대관심사는 역시 병영집체훈련인바.

이미 훈련을 끝마치고 돌아온 타대학 친구들에게서 어려운 점을 많이 들었고, 여러가지 충고도 들었지만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관심의 대상은 뭐니뭐니해도 머리에 대한 화제인듯.

언제 깎아야 며칠이라도 긴 머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하고 모이기만 하면 공론 (空論) 에 공론을 거듭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는 결론은「에라, 별수있나 깎을수밖에.」

「에라, 깎을수밖에」

법정 상경 학술토론 대회 개최예정
학풍조성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위해

2학기도 거의 종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새로운 학풍조성과 대학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각종 학술토론대회가 전외대인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상경학부에서는 11월9일오후2시본대학 강당에서 제7회 상경학술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창의력있는 학문의 연구자세확립과 당면한 한국경제의 폭넓은 연구,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취지에서 열리게 될 이번 학술토론대회에서는「우리나라 수출증대방안」「우리나라의 조세개혁」등 다수의 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주제발표와 질의등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또한 법정학부에서는 오는 11월11일 오후2시 제3교사 206호실에서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대학생의 올바른 연구자세 확립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풍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4회 법정학술토론대회를 개최한다.

법정학부 3개학과에서 선택한「한반도 주변정세 고찰과 대응방향모색」「우리나라 현행 상속제도의 특징」등 5개의 주제로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우수논문발표자와 질의자에게는 상장및 부상이 수여된다.

신문사, 호국단
친선체육대회가져

학도호국단 부서간부와 본사 디아거스등 외대신문사 기자단간의 친선체육대회가 10월23일 오전11시 호국단부서간부 신문사기자및 이강혁 학생처장, 석일균본사주간 김세영학생과장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본대학 운동장에서 열렸다.

하수도

▲졸업시험, 졸업논문으로피곤했던 4학년생들—이제는 취직시험으로바빠질 저 무거운걸음.

▲아담하게 마무리지은 의·서전—축구장·야구장으로 용도다양한 운동장 독하 설업중.

사설

긴장이 풀리지는 않았나

면학열·안보관을 고조하자

시월(十月)은 문화의달이자 독서의 계절이요, 또한 젊은이의 심신을 단련하는 체육의 계절로서 연중 가장 풍성한 행사가 베풀어졌던 축제의 절기였다. 각급학교가 갖가지 행사를 마련해서 남녀청소년들이 두뇌를 기울여 문예창작에 골몰하거나 발랄한 지체를 창공아래 드날리어 마음껏 가을의 밝은 대기를 호흡하였다.

이러하여 십일월로 접어들었으나 아무리 젊은이의 정열이 열화같다기로서니 아마 이만하면 어지간히 열풍도 가시고, 뒹구는 낙엽을 밟고 소슬한 바람을 쏘이면서 새삼 생활의 의미를 사색하는 정적(靜寂)으로 돌아서는 어름이 아닌가싶다. 우리대학으로 말하더라도 학도호국단이 주관하는 축제가 다양하고 규모있게 진행되어 학교·학생할것없이 흐뭇한 충족감을 함께 나눈바 있었고, 예년에 설왕설래하던 수학여행이 올부터는 학교당국의 지도와 학생들의 자세자숙으로 말미암아 실속없는 허송을 일삼아가면서 학업에 축을 내던 사례가 거의 없었던것은 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래도 몇몇 학생만은 수업을 뒤로 미루고 사사로운 근동나들이를 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들려오니 적으나마 반성의 여지가있다 할것이다.

교정 한구석에서 단란하게 구기(球技)로 심신의 긴장을 풀고 오손도손 담소하는 차분한 자세는 청초한 흥취요 이것이 부러움을 자아내는 학생들의 거조지, 꼬리를 밟고 흥청거리는 행락에 넋을 놓는데서야 어찌 상아탑의일자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의 행사에는 학교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하고 유의한것임을 다시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이번 27일에 개최된 외서전(外西戰)은 양교의 친선유대, 나아가서는 같은 면학의 길을 지향하는 젊은 이들끼리의 승부를 초월한 체육기능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행사였다고 하여도 좋을것이다.

체육경기란 마침내 힘과 기(技)의 대결이다. 힘의 대결이로되 규율에 순응하고 승부를 초월한 페어플레이를 표방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미감으로 통일된 젊음의 제전이다. 그것이 결여된 싸움이란 투구(鬪狗)와 다를 바 없는데, 같은 구설과 뒷공론을 남기는 항간의 더티플레이를 종종 보아오던 우리에겐 이번 외서전에서 지성인의 미기(美技)를 본듯하여 두고두고 청량한 뒷맛이 남는다. 그러한 잡잘한 행사를 주선하는데 동분서주한 홍순태 교수및 학생처의 관계인사와 호국단제간부들의 노고와 아낌없는 후원을 제공한 학교당국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차고 무게있는 교환(交驩)경기가 되어주기를 당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행여 마음 한구석에 허탈감이나 긴장의 해이를 자초하여서는 안되겠다. 우리는 내일의 전진과 창조 생산을 위해서 심신에 청량한 바람을 불어넣었을 따름이지 앞으로의 정업은 그야말로 태산과 같다. 천만번 되뇌어도 다하지 못할 우리의 아슬한 전정(前程)이 바로 이 면학이라는 대도(大道)다. 이제는 정규적인 체육과정말고는 레크레이션정도의 시간 할애밖에는 행사를 위한 모임은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어제의 용호(龍虎)들은 이제조그맣게 어깨를 좁히고 책장과 숨소리가 가늘게 여울지는 책상머리에 좌정하여 깊은 진리의 문을 두드려야 하겠다. 지성은 현실을 떠난 높은 상아탑에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사회가 안온한 학문의 터전을 제공한 것인바, 이것을 본령대로 누리고 빛낼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학문의 자유요 지성인이 누린 특권임을 잊지 말자. 더욱 우리의 지성인이 향유하는 자유와 특권에는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또하나의 의무가 있다. 우리에게는「국가지상」이라는 시대적인 자각이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이 지성의 온실이 거센 한풍에 시달릴지 모르는 위험을 등에 업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1월10일부터 1학년 남학생 전원이 문무대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의 현지연마를 하게 되었다. 제2차대전 직전 미국「프린스턴」대학에 초빙되어 교수직을 맡았던 세계의 석학「에밀·브리너」는「히틀러」의「스웨덴」침공계획을 전문하자 교수직을 스스로 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노구에 총을 잡고 국경을 지켰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가 어찌 이것뿐이라마는 나라가 없는 곳에서 지성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성으로 발랄한 참다운 참여 의식이다. 우리의 주변이야 다시 구구한 설명으로 어찌 다할 것인가.

앞으로 집체훈련에 임하는 학생들이어, 사태를 분석 비판하고 거기 대처하는 방안을 고구하는 논리이상으로 그대들의 노력과 땀만이 참된 지성의 진로임을 자랑스러이 과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여 그것을 나라의 초석이라는 영광으로 길이 누리라.

긴장과 근면의 띠를 다시 조이면서 면학열·안보관을 언제나 고조시키자.

脫유엔경향

UN과 한국문제

성황용

구속력 없는 UN의 결의

비타협적 대립만을 부각

1

금년 제31차UN총회가 열릴때까지 한국문제는 거의 매년 의제로 상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UN은 한국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해 놓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아 내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UN의 기능상의 한계성, 이해관계국가의 정책, 현단계의 추이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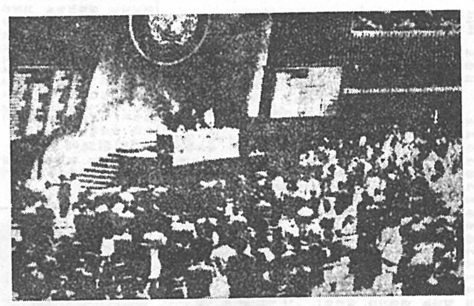
UN은 창설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관련된 몇가지 결의를 통과시키고 실현에 옮긴 일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50년 UN군의 한국파견과 동년 제5차 총회에서의「평화를 위한 단합」결의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것인데 불과하며, 우리가 한국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 통일문제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UN가입문제나 유엔군의 철수문제등도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 통일문제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UN이 한국문제에 관련을 갖게된 계기도 미·쏘양국의 한반도분할 점령에서야기된 분쟁을 조정, 해결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고있다. 다시 말하면「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의통일문제에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이 1947년 9월17일 한국독립문제를 제2차 UN총회에 제기함으로써 한국문제와 UN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 당시 쏘련측은 한국문제가 UN의 관할사항이 아니며, 미·쏘양군의 동시철수후 외부의 협조없이 한국민자신의 정부를 조직케 하자는 주장을 내걸고 반대하였으나, UN총회는1947년11월14일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하여「UN임시 한국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구성하고 통일 독립정부구성에 협력하기로 결의 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동위원회는 1948년 1월12일 서울에서 첫 회합을 갖고 남북총선거실시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쏘련이 동위원단의 북한입북을 거부했기때문에, UN소총회의 결의에 의해 동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 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동년 5월 남한의 총선거가 실시되고 뒤이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됐다.

1948년12월12일제3차UN총회는「임시위원단이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지역에 대하여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또한 동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한국정부의 유일합법성을 공인했다. 한국이 이같이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정부를 수립한것과 거의같은시기에 북한공산주의자들도별개의 정부수립을 선포하여 한국문제는 정권및 체제간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바뀌게됐다.



9월21일 제31차 유엔총회 개막식광경

「탈 UN」을 기본정책으로 유연성 모색

최근 북괴 파탄으로 대화접근 가능성 커

2

북괴의 불법남침에 의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UN총회는 1950년10월7일의결의에 의해 한국에 통일독립된 민주정부의 수립을실현하려는 목적에서「UN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을 설치하였다. 또한 1953년 6월28일 UN총회는 한국휴전협정체결을 승인하고 휴전협정제60항에 의거한 정치회담개최를 환영하는 결의를채택하였다. 이 정치 회담은 1954년 4월부터 한국을비롯한 연합국대표와 공산주의 중공 북괴 소련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에서개최되었다. 그러나 제네바회담은 UN감시하의 인구비례 남북한총선거를 제의한 우리측 주장을 공산측이 맹렬히 비난하고 UN에 의한 한국문제처리자체를 비판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문에 한국문제는 자연히 UN에 되돌려 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197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매년UNCURK 의 보고서를 매년 UN총회에 제출하고 이를토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서방측은 UN의 목적을 강조하고 UN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을 매년 제출하였으며, 공산측은 UNCURK해체와 UN군의 철수등을 내용으로 한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여 대결하였다. 이당시 미국은UN총회에서 냉전문제에관한 지지표를 1957년까지는 회원국의 4분의3, 1959년까지는 3분의2, 1966년까지는 과반수를 확보할수 있었기 때문에 서방측 결의안은 매년 통과되고 공산측 결의안은 매년 부결되어 왔다. 그러나 UN 총회의 결의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때문에 양진영의 비타협적대립만을 부각시켜 주었을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시기는 남북한에 별개의 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사실로부터 통일문제에 또 하나의 요소를 부가시키게 되었다.

그것은 정부의 합법성문제와 이에 연결된 UN가입문제이다. 한국정부는 UN총회의 결의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공인된만큼 당연한 귀결로서 UN가입이 허용되었어야할 것이다. UN가입은 한반도내의 합법정부라는 것을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및 서방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UN총회가 갖는 권능의 한계성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UN헌장에 의하면 총회에 출석 투표하는 가맹국 3분의2의 찬성을 받으면 회원국으로 가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상임이사국을 포함한 7개국의 권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5대국중 1국의 반대만 있어도 가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쏘련과 중공이 북괴를 지지하는 이상 한국의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를 잘 알면서도 북괴는 1954년과 1956년에 UN가입신청을 한바 있는데 그 저의는 가입자체보다도 북괴정권의 존재와 합법성을 인식시키려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 1971년과 1972년에 UNCURK보고서 토의를 연기한데 이어 1973년 UN 총회에서 UNCURK를 해체한 것이다. 이것은 UN감시하의 총선거를 주장해 오던 서방측 입장의 수정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방측 입장의 수정을 가져오게 된 요인으로서는 신생국가들의 대거 UN가입으로 서방측 지지세력이 1954년 83%에서 1972년에는 52%로 줄어 들었다는 점, 1970년 한국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계기로 한민족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통일노력이 진전되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때문에 서방측은 UNCURK는 냉전의 소산이기 때문에 동서화해로 그 역사적 사명을 다 했으며, 또한 다년간의 UN의 노력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음으로 한국인 스스로의 대화를 통한 통일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아래 UNCURK해체에 동의하게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도 종전과 같은 UN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통일방식의 고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UN에서의 남북대결은 대외적인 민족의 수치라는 점, 이해관계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UN총회의 결의는 실효성없는 시간의 낭비일 뿐이며 오히려 남북간의 직접대화에 유해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남북간의 경쟁관계에서 한국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 자신감등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새로운 UN정책은 현실적인 통일의 길이 평화정착,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에 있다는 판단하에「탈UN화」를 기본정책으로 하고, 이에 도움이 될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려하고 있다. 남북한UN동시가입을 찬성하는 것도 이러한 유연성의 표시이다.

한편 미국도 1975년 9월과 금년 7월, 그리고 9월30일 UN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미·중공의 4당사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해 왔다. 특히 이번 제안에서는 회담장소및 범위에 관한 협의를 위해 남북한간의 예비회담개최를 제의함으로써 회담의 주도권을 남북한에 맡기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남북대화의 재개와 당사국회의를촉구하고, 평화통일 이전까지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제의하고 있다. 이같이 한국을비롯한 서방측의 입장은 탈UN화를 지향하고있다.

이에 대해 공산측은 비동맹세력의 대거 UN가입에 기대를 걸고 60년대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 결의안을 계속 제출하여왔다. 즉 공산측 결의안의 골자는 주한미군의 무조건철수와 휴전협정의 대안으로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등으로 되어 있고 UN동시가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북괴가 주동이 된 공산측 결의안에서 유의할 것은 소위 그룹의 혁명투쟁정책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UN에서는 국제문제인 미군철수만 해결하고 통일문제는 민족내 문제이니 그들의 통일전략에 맡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하에 작년제30차총회에서 동서양측결의안 동시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던 북괴는, 금년 제31차UN총회에도 서방측안에 앞서 서둘러 공산측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총회개막을 하루앞둔 9월20일 돌연 UN결의안을 철회함으로써, 금년 총회에 양측결의안을 모두 철회케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북괴가 이번에 결의안을 철회하게 된 원인으로서는 북괴의 내분및 경제적위기, 비동맹회의에서의 지지세력규합실패, 8·18판문점사건 이후의 여론악화, 공산측결의안의 공동제안국수의 감소와 찬성표감소예상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상에서 UN에서의 한국문제를 개략적으로 보아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국문제란 냉전의 소산인 남북한문제와 이에 따른 한국의 UN가입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시연합체제의 지속적인 협력을 예상하고 세워진 UN기구의 기능상의 결함때문에 UN에 의한 한국통일문제의 해결이란 기대할성질의 것이 못되고 있다.

따라서 UN에서의 한국문제토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분히 선전적 심리적 자위에 그칠 우려가있기때문에 한국측은 탈UN화를 통해 현실적 한국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탈UN화가 가능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은 북괴측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앞으로도 북괴는 종전의 결의안을 계속 제출할 가능성도있다. 그러나 만일 북괴가 경제적압박이나 기타 이유로 소련이나 중공측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보다 커진다고 한다면 4당사국회담이나 UN동시가입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크다.

<정외과·조교수>

오번의자

친선체육대회 유감(有感)

서강대학교초청 친선체육대회가 지난 10월27일 개최되었다.

1승1패의 대회결과가 말해주듯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는 승부를 초월하여 서강대와의 우의를 한층 돈독히 할 수 있었으며 다소나마 본대학인들간의 진득한 동일체(同一體)의식을 확인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었음을 믿어 의심치않는다.

특히 이번 대회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열렸던 친선경기가 양대학사이에서 구체화되어 정기친선체육대회로의 태동을 본 이후 실시된 첫 대회라는점과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로 구성된 양대학 선수들이 기(技)와 힘을 겨룬「순수」아마튜어들의 제전이었음을 감안할때 그 의의는 한층 배가(倍加)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번 대회는 대회준비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진행을 서둘렀고 서강대의 응원단이 참가하지 않은 것등은 흐뭇한 가운데 느꼈던 아쉬움이었다. 졸지에 책과 펜을 놓고 뛰어나온 선수들이지만개개인의 기량을 좀더 향상시켰으면 하는 욕심마저 품게 하였다.

그런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형태의 기구가 설치되고 아울러 외대인과 서강인들의 거교적이요 능동적인 참여를 보게 된다면 친선이상의 성과를 낳아 마침내 학문적인 교류에까지 발전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첫술에 배부를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당장에 기대하기는 조급한 것이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뿐이다. 대회가 차차 연륜을 쌓아 갈수록 초기에 가질수 있는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감정은 자연히 잊혀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대회가 양대학간의 단순한 체육경기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양대학인들의 높은 지성과 열화같은 젊음을 유감없이 발산할수 있는 차원높은 대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 대회는 결코 참가 선수들만이 즐길수 있는, 양대학의 체육경기수준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대회가 되어서는 안되며 양대학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함께 즐기며 기뻐할수 있을때 비로소 명실공히 친선체육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운동선수로 구성된 운동부가 없는 관계로 다소 체육활동이 미진(未盡)하다고 볼 수 있는 본대학으로서는 이러한 체육교류활동이 자칫 무관심하기 쉬운 체육에 대한 외대인들의 열의와 관심을 일깨워 주는 촉매로서 지대한 공헌을 할것임을 확신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외·서 친선체육대회는 이제 그 시작을 보았다. 제1회 대회는 비록 많은 아쉬움을 남겨 놓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바에 별로 빗나가지 않은 의의를 찾을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대회를 좀더 독특한 의미를 지닌 권위있는 대회로 성장시키는 문제이다.

외·서 친선체육대회가 연륜을 거듭할수록 그 취약성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기력 향상과 참여의식의 고양(高揚)을 통해 젊은 지성의 성전(盛典)으로 승화될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관계교수, 그리고 호국단 관계 동배들의 노고에 심사한다. <홍>

외대만평

◇만수무강—외서전(外西戰)

과즙100% 순수와인 사과주 파라다이스 딸기주

각종 편의제공 : 본사 영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7757~9

육해공군 행정지원병 모집

자격 : 육군17~26세중졸이상해군 : 17~23세 중졸이상 공군 : 19~23세고졸이상수료후 각군전형을거쳐입대합상세한것은 직접문의요. 각군위촉기관, 종로1가24 무교동버스 정류장 무과수제과 2층

사단법인 대한글씨검정교육회 ⑦3771 ⑫5346

서 예

펜글씨·붓글씨·한문 기초부터 철저개인지도 취업반 : 차트·프린트 무교동정류장 ⑦3771 무과수제과 2층 ⑦5346

한인성서예학원

프랑스語

개강 11月 3日(水)

모든 수준의 어학과 회화강좌가 있음.
강의시간 : A.M1.00~11.30 (시청각회화)
P.M : 4.00~8.45까지
※10月30日에 다음 새주소로 이전함을 알려드림※
중구회현동1가63—2
무역회관 맞은편 서울렉스호텔뒤
☎④4972
알량스 프랑세즈

제214회 개강 11월1일

독일어

◎초·중·고급 문법반 ◎독문해석연구 ◎초급독본, 소설반 ◎시사독어반 (DIE ZEIT紙) ◎과학독일어 ◎회화반(독일인직강) 본학원에서는 독일어만 강의합니다

독문화학원 ㉗3569

을지극장—사이골목—을지로2가네거리
(을지로2가 한솔정유장옆 명신철물 골목)

한인 E·F·A 900英語 東京日本 英語

종로2가 ㉒ 태극당건너 87 64 49 73 길지과

11월수강생모집!
◎초. 中. 고 各班 9名씩
교재 EFA 전용교재와 Spoken
교수법 Hearing 30分 녹음기 / Speaking 30分 한인 / Freetalking 90分 美人
시간표 (매시·초·중·고반있음)
아침 7—9 Hughes / 8—10 〃 / 10—12 Miss Engiy
낮 12—2 〃 / 2—4 Mr. Hughes / 4—6 Mr. Bech / 6—8 Miss AgA / 8—9.30Mr. Hughes
1·2·3권 초·중·고 各班 4인 조로책임지도·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美國人會話

전동 타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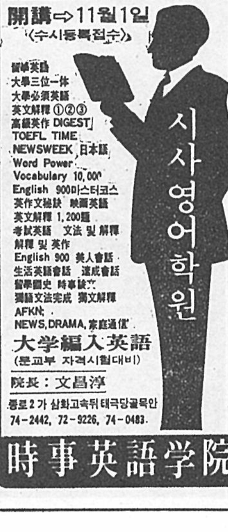
를 사세요

타자기명 : SMITH, CORONA
(색깔 : Green)
규 격 : 8 휴대용
가 격 : 개인 절충
연 락 처 : ⑧4187

大學生과 成人을 爲한

英語·日語·独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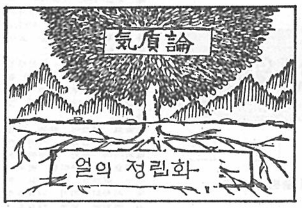
開講⇨11월1일 〈수시등록접수〉



종로2가 삼화고속뒤 태극당골목안
74-2442, 72-9226, 74-0483.

時事英語学院

정립에의 모색



고유한 전통의 발굴필요
미래의 조망을 위한 정신적 소산물
얼은 속되지 않은 관념으로 시작돼

◇얼은 순수한 미래 지향성을 내포해야 한다.]

사회일반에 깔려있는 대학관(大學觀)은 대단히 실리적이고 이기적 목적을 지닌 것이라 볼수 있다. 이를 사회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현상(지식 곧 생활수단)이라고는하지만 대학이 내부에의 눈(심오한 학구적 만구: 상아탑의 본질)을 돌리기보다 지나친 외부의 실용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하나 그러나한편 불행스러운 일이기도하다.

이문동, 이 언덕에 지성을 신화하며 생동하는 학구적 대화의 터전이 되어야 할 우리 외대의 경우 이와같은 현상은 쉽게 목도(目睹)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어대학이라는 특수한 성격때문에 상당량을 실용적 교육에 치중하는 현재의 상태를 오늘의 상황에서 논의하기란 여간 거북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과거의 장(章)에서 발견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며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조망할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인 좌표만은 미상불 발견해야 한다는데 귀착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적 좌표를 얼이라고 규정짓든 기질이라고 규정을 짓든 그 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얼은 내부적 관조에서기질은외연적(外延的)관찰—, 즉 어떻게 표출되는가에중점을 둔 것으로 두 개념은 상성(相成)할수 있기 때문이다. 22년이라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숱한 한국대학들의 보편적 전통이 아닌 고유한 전통의 발굴이란 결코 쉽지않은 일이지만 이제 청년기에 들어선 외대는 대학이라는 일반성 외에 그 고유성을 간직해야 할 때가 정녕 온것이다.

대학이 사회의 실용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공의 수련장만이 아니라면 이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며 그 타당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외대의 얼을 정립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얼을 현재화할 것이냐, 아니면 가상적인(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현재 명문사립대학교들이 자기들나름대로의 구호를 내 걸고 전통인양 자랑하고 있음은 다분히 외향적(外向的)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간혹 인습적인 요인이 전통으로 오도(誤導)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길지않은 외대역사

<목 차>
①정립을 위한 서언
②정립에의 모색
③대학 기질론
④얼의 정립화

얼의 부재에 회의는금물
동문의식 고양도 주요소

에서 그들이 간직해온 수십년의 정신적 편력과 고민을 읽어보려함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이상의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대의 얼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상정(想定)해두어야할 것은 일단 가상적 방향으로 얼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주장한다해도 그것이 인위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한 거짓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이라 함은 역사의 흐름을 망각하고 현재성만을 강조하거나 얼을 이룩하려는 강제성등을말한다. 얼이란 면면히 이어져나가는 끈기라 볼 수 있기에 22년의 전통위에 바탕을두는 우리의 고민과 숙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결코 속되지 않은 관념의 형성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얼은 보다 순수해야하며 미래지향성을 내포해야한다는 방위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건실하고 항구적인 고유한전통의 수립이며 그는 어디까지나 학교발전에 기여할수 있어야 한다.

외대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대학이 되어가고 있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심어간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극명(克明)하게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모두가 사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떳떳한 얼을 간직할 방법은 논자(論者)에 따라 다기(多岐)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이중에서 공통된 전제는 상기(上記)한 바와 같은 몇가지로 규정지워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한국대학이 아닌 외대만의 심볼 (Symbol) 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해야할 것이다.

우선 신성한 대학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학문에의 끊임없는 정열을 늘 간직해가며 대학을 생각해야 하는것이다. 그리고 얼의 정립에 경박한 몸짓을 한다거나 얼의 부재상태에 어설픈 회의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외대에 얼이 없다고 단정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외대생의 긍지를 내포하는 것이 곧 얼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동문의식의 고양도 외대의 전통형성에 크게 상승(相乘)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사회활동의 저력을 구축할 것이다.

이문시대 22년 진리·평화·창조의 가치는 오늘도 외대역사의 한 장(章)을 기록해 나갈 것이며 외대의 얼 또한 그 정립에의 상황론적(狀況論的) 출발을 새로이 할 것이다.

<유영을기자>

<설문>
①외대에서 느끼는 인상은
②외대의 이념과 이상은 무엇이며, 외대는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③외대얼은 어떠한 방향에서 정립되어야하며, 그 방법은

외대·외대얼 ②
그 정립을 위한 시리이즈

무엇이 문제인가—각계의 의견

개인주의 성향강해
김 학 수
<R·1회본대학교무처장>

1) 우선 현저한 발전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는 외형적 관찰에 중점을둔 것이지만 내적으로도 성숙해졌다고 본다.

2) 현재로서는 굳이 내세울만한 외대의 얼은 말하기 어렵다. 이는 시대와 더불어 탄생되는 얼이 진정한 것이며 인위적인 얼이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아직 얼의 정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 학생들자체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외국어 학도들의 단점이라 생각하며 얼자체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기하기는 어려우나 외대의 얼은 계속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3) 교무처장의 입장에서 현재의 대학이 기초적 교양이 미흡해 학생들의 학문성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즉 커리큘럼상의 문제점을 현실에 적응해가며 수정해야하며 기초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대변자
김 기 주
<E·2·회MBC해설주간>

1) 다소 여성적이고 짜롭한 면이 있는것같다. 그러나 여성적이라고해서 나약하고 온순하다는것이 아니라 진지한 학문적 자세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질수있는 성실성등이 첨가된 여성적이다.

2) 세계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의식을 인식한 한국사회가요구하는 유능한 사회인의배출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만족할 정도는 아니나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외대의 이념과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방향점을 모색해야 되었다.

3) 외대적 특성, 즉 어학을 통한 한국과 외국의 가교적 역할에서 외대의얼이 정립되어야 한다고보며 그러는 가운데 졸업 후에 모범적인 사회의 우등생이 될것이다. 외대얼의 구현에는 재학생, 교수, 재단측은 물론 전 외대동문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참된 외대인이 절실
박 규 서
<영어과 교수>

1) 진지하면서도 순진한 것 같다. 사제지간에 있어서 친근미를 느끼게하며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세계를 관조하려는 긍정적이고 겸손한 인상을 준다.

2) 모름지기외국어를 주전공으로 하는 대학이기때문에 한국사회내의 좁은을 바라보다는 더넓은 세계로 진출하려는 진취적이고 실질적인 사상을 우리의 이념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외국어를 통한내면의 성찰은 물론 조국과 민족의 밑거름이 되기위한 세계의 문물을 수용 하는 광장이 되기 위해서는「참된 외대인」이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3) 외대얼이란 상아탑적인 대학생활 속에서 만이 진지하고 순수하게 정립될 수 있다고 보며 미래를사는 실질적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겸허한 자세로 역사와 국가에 부응할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능력을 갖추고 있을때에 외대얼의 정립이 가능하다.

독창적인 대학기풍
김 규 호
<E·3·The Argus기자>

1) 외대는 외국어의 요람이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순수한학문열은 식어가고 있고, 나아가 외국어의 영두새도못되고 순수학문도 섭렵은못하는 상태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대 포장된 허장성세적인 면만 외대캠퍼스를 지배하는 것같다.

2) 외대의 이념과 이상은 각국어를 매체로 하여 유능한 역군을 산출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상태인 듯하다. 예를 들어 외무부에서는 많은 외대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다. 비록 사회과학 계통의 시험과목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한동안 합격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반성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3) 외대얼이라 하면 외대의 학교기풍(School Spirt)에서 조성되고 박마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금은 이차징후적(二次徵候的)인 정신의 발아(發芽)가 외대인들의 건전한 판단과 에스프리를 저해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외대인들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자기들의 전공학과에 신념을 주게하는 것이 외대이념을 구현하는 첫길음이라고 본다.

얼은 나의 인식에서
이 영 주
<Tu·3·학도호국단 여학생부장>

1)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은 물론 외대인들도 외대인들이 패기가 없다는점에 동감하고 있다. 물론외대인의 학문에 대한 성실성이나 내적인 충실은 인정하나 젊은이다운 그리고 외대인의 구심적 역할을할 외대얼이 없다.

2) 본 대학이 주로 외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본대학의이념도 그러한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한국과 외국의, 교량적 구실을 함으로써 조국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민족적 대학이 되어야 한다.

3) 자칫 외국어에 대한 막연한 이상이나 동경으로 외대정신이 흐려질 염려가 있다. 외대얼이란「나」의인식과 애교심의 발로로 인해 정립될 수 있다. 물론 한 대학의 얼이란 것이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은아니지만 21년이면 어느정도 우리의 정신, 우리의 기질이 확립될 때가 온것 같다. 외대얼이 이렇게 부유하고 있을 수 만은 없지 않은가.

한글 전용은 과학적

時論 이상준

문화 창달을 위해선
과학과 속도의 시대에 부응하고
시간과 공간의 시험기를 거쳐야

과거의 편견버린 진실한 토론 아쉬워
찬:피상적인 경험의 편견
단자사이의 결합 난점:반

한글 전용이냐 한문 혼용이냐의 논쟁은 해방이후 줄곧 전개되어 왔다. 한나라의 문자 정책은 그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런문제는 많이 논의되어도 좋다. 현대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 분석으로 해결하는 시대이다. 과학은 전문 분야 별로 연구되고있어서 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그것이 어떤 전문분야에 속한가를 알아 가지고 해당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의한 해결을 찾는다. 문자에 관한 문제는 크게보면 문화에 관계되나 좁히면 언어행위에 관한 것이며 아니 더욱 좁게 보면 언어 행위 중에서도 문자 생활에 관계된다.

이렇듯이 고도로 전문적인 문제를 놓고 비 전문인들이 저마다 상식에 의존한 의견을 제시한 일도 있었다. 이들은 문자가 문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내세워 문화인의 자격으로서 이론적 바탕도 없고 실험적 증거도 없이 상식에 의한 상상력과 피상적인 경험에서 나온 편견을 제시해 왔다.

이 문자 문제의 논쟁에 있어서 과거의 미련에 집착되고 감상적 향수에 젖어 미래를 지향하는 전진의 자세를 막는 편견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찬반 견해의 공약수를 잡아 분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한글 전용 반대의 견해를 보면, (1)우리말의 어휘의 근원이 고유어가 48%이고 한자어의 파생어가 52%임으로 한자어의 파생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는것. (2)한자 교육이없는 사람은 우리 말을 한자로 표기하면 이해할 수 없으며 표음 문자인 한글로만 표기하면 소리만「읽는다」는 것이며 표의 문자인 한자로 표기하면 뜻을「이해한다」는것. (3)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국문학, 국사, 동양사 등을 교육할 때 한자어의 술어 풀이에 시간을 거의 다 빼앗긴다는것 (4)우리말은 한글과 한문이 합쳐서 되어 있어서 표음 문자로 부족한 것은 표의 문자로 보충시켜 양쪽의 장점을 살리자는 것. (5)한문으로된 우리의 고전을 한글로 번역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것. (6)한문은 배울 때만 어렵고 일단 배우고 나면 활용하기에 능률적이며 편하다는 것. (7)표음 문자인 한글도차츰 표의화하여 가고 있다는것. (8)한글은 조어력이 없고 한자만 있다는것.

찬성의 견해는 다음과같다.

(1) 언어는 본래 소리로 되어 있어서 입으로 하는 말을 표음 문자인 한글로 적자는 것. (2) 말은 어원을 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현시적으로 평판적으로 쓰여진다는것. (3) 민주주의 시대는 모든 사람이 고루 알고 살아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의무교육만 받은 국민이 문자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않도록 배우기 쉬운 한글을 일상 생활에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 (4) 모든 과학의 기본은 분석과 종합의 능력에 있는 것으로서 한글은 모음 자음 28자로 무궁무진한 어휘를 창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전용은 분석할수 있는 두뇌 훈련을 시킬수 있다는것.

(5) 조어력은 한자에만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글에서도「덧」이란 글에「덧니」「덧문」「덧버선」「덧셈」과 같이 여러가지 합성어를 만들수 있는 조어력이 있다는 것. (6)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열로 창조되었고 우리민족의 주체적 정신으로 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 이 민족의 독창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수 있다는 것.

(7) 한글은 분석 종합의 글자이기때문에 문자의 기계화에 알맞아 문자생활의 속도를 가속시킬수 있다는 것.

이상 열거한 찬반의 견해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다. 반대 (1) 의 견해는 우리 말의 어휘의 근원의 분포도를 내세운 것이다.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민족의 언어는 대체로 고유어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외부에서 온 것보다 적다. 고로 우리말의 어휘가 한자어에서 왔건 또는 다른 말에서 왔건 우리말로 동화되어 있어서 그말을 가장 편리하고 쓰기쉬운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는 그러한 문자인 한글이 있다.

반대 (2) 의 견해는 단자인 한자어와 문자인 한자를 구별을못한 말이다. 한자어에서 나온 단자도 우리 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을 구사하는 사람의 공동소유이지 한자를 아는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말은 단자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문장속의 문맥을 통하여 배워지며 그리고 말은 본질적인 면에서 문자이전에 소리를 전제로 한다.

반대 (3) 의 견해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용어에 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나 이것은 전반적인 국가문자생활및 정책과는 관계가 먼 것이다.

반대 (4) 는 문자가 언어인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한글(표음문자) 과 한자(표의 문자) 는 언어가 아니고 문자이다. 문자는 말을 표기하는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언어는아니다.

반대 (5) 는 번역의 미숙성을 지적하는 말은 되어도 한글 전용 반대의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 문자 생활인이 우리의 고전을 모두「원어」로만읽어야 한다면 그들은 모두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반대 (6) 은, 한자는 배울 때에만 어렵지 일단배우고 나면 활용하기에는능률적이며 편하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한자는 배울 때 어려운 것이라기 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것 뿐이다.

이것은 분석 종합의 사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낮은 단계인암기력만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폭격 중단」을 한자로 쓰는데 서슴치 않고 쓸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반대 (7) 은 한글도 표의 문자로 전향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자와 단자의 차이점을 혼동한말이다. 문자는 뜻을 갖고있는 단자를 표기한 기호이지 그 자체가 뜻을 갖고 자는것이 아니다. 예컨대,「꽃」이란소리는 자음(ㄲ)+모음(오)+자음(ㅊ)의 소리로 구성된 n수자의 의미 구성분 (semantic segments) 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의미 단위 (semantic unit) 인 한 단자 (lexical item) 이지 문자 하나 하나인 ㄲ, 오, ㅊ이 표의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반대 (8) 은, 문자가 조어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이다. 조어의 현상 중의하나는 단자와 단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합성어의 현상인데 이것은 한글로표기하나 한자로 표기하거나 차이점이 없다.

찬성의 견해는 반대의견해에 대한 비판의 논리와 합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분석 검토한 것을 요약하면 찬성의 견해가 언어학적 원리에 입각한 이론인데 반하여 반대의 견해는 상식에 입각한 주장임을 알수 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 인간 심리이며 그리고 인간 활동은 그러한 방향으로끊임없이 틀려지고 있다. 한자는 문자로서 분석 종합의 응용의 원리가 없기때문에 개개항목으로 모두다 외어서 문자생활에 이용된다.

한자어의 장점이 있다면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어력이 크다는 것인데 한자어를 가지고 앞혹은 뒤에 멋대로 붙여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그 신어들의 실용적 가치가 그때 그때 쓰이는 순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말 사전은 거의 필요가 없을정도이다. 왜냐하면 함부로 만들어 쓰는 말을 어떻게사전에 일일히 수록할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순간적으로 사용되고 소멸되는것을 수록할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새로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시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자의 음과 뜻을 가지고 난잡하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문자 하나 하나에 뜻을 일일히 부여하는 표의 문자 생활은 어느 의미에서는 원시적인 언어 생활과 같다.

이것을 보완한 표현 방식이 상형 문자 생활이며 이것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것이 표의 문자생활이다. 상형 문자나 표의 문자는 사물을 본 따 만든것으로서 사물의 숫자와 거의 비례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 개념에 있어서 원시적 단계와 같다. 100개의 사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100개의 사과를 실물로 제시하든지 아니면 100개의 사과를 그려서 나타내는 것이다. 표음 문자는 정수 0…9의 10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무한대의 수를 나타내는 것 처럼 자음과 모음의 제한된 문자를 통하여 무한대의 인간의 표현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수리 언어학자인 카납 (Carnap) 은 인간의 언어도 고도의 경제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수학적인 숫자로 대치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기까지하고 있다. 과학과 속도의 시대에 부응하는 문자 생활이 절실히 요망된다. <영어과 조교수>

미네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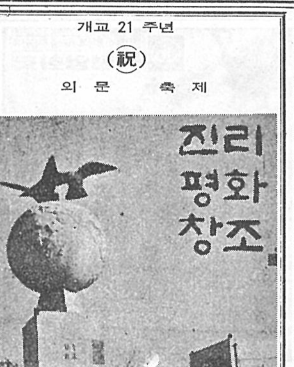
원(圓)의 미학(美學)

▲현실이란 항시 우리의 주위에 머물러 빙그르한 원(圓)을 끊임없이 그어 가나보다. 또한 현실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에 따른 한계(限界)의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변화 속의 실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인간들은 각양각색의 시행착오를 거듭해가면서 현실이 긋고가는 원(圓)의 한계를 추구하려는 젊음의 행렬에 누구나 끼기 마련인 것같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원(圓)이 무한하고 둥글게 커지는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원(庭園)에 수북수북 두텁게 쌓인 낙엽더미에 앉아서나, 저녁마다 유난히 구두를 절리적거리게 하는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우리들은 다음 계절이 숨가쁘게 찾아오는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지 않은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려는 기운이 서려온듯, 따스함을 찾아 크다막한 마음 문을 여는 우리를 올려다 보는 것이 아닌가. 거리에 어둠이 찾아들면 노점마다 밝히는 조그만 불빛이, 쏟아떨어질듯한 무수한 별님네들이 우리를 눈앞에 따스한 동그라미를 그리곤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계절에서 또하나의 원(圓)에 대한 현실의 긍정을 받아들이고 있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장막을 걷어라/너의 좁은 눈으로/이 세상을 떠보자…/아아 나는 살겠네 태양만 비친다면…」하는 노래를 커다랗게 다시 불러봐야할 마무리져야하는 시간이 그리고 공간이 찾아드는것 같다. 이럴 때 우리의 젊음이란 꿈틀거릴수 있는 여유를 나타내면서 행렬히 솟아오른다고 생각된다. 꼭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해가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이라해도 곧 우리는 창밖에서 비쳐들어오는 햇빛을 느끼게 되며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간절한 소망들이 창문 저편에 둥그렇게 충만히 펼쳐진 것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젊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이 긋는 원(圓)이란 갈럽한 궁정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한다. 햇빛 속에서, 바람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현실이 오르고 내려가면서 빙글빙글 관념의 원(圓)을 만들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렬에 끼어들어 앞으로 앞으로 즐탈음을 치게 되는 것이다. <은>

개교 21 주년
(祝)
외 문 축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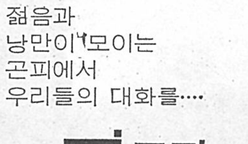


錦昌貿易株式會社
代表理事 盧採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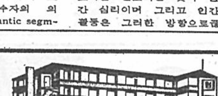
육군 해군
위생지원병모집
복무년한 일반병과 동일<표면단축혜택>소정의교육후 희망시기에 위생병·위생하사관으로
관위축제 938~1533호 육군참모총장위축제 823호 해군참모총장위축제 211~2668호에 의거 단독지원입대(후반기교육면제) 국방부장
<월별정원한모집>
한국간호보조학원위생병과
서울시 동대문구신설동101~7 (지하철역앞)
⑭5004·5005 ⑦5412

『A Better Paying Job Tomorrow』
영문 한글
速 記
전담지도 盧英民교수
8주속성(교재IPM)
무료 공개강좌
※ 8주완성: 美최신IPM 교재및 TAPE공개※
『A Better Paying Job Tomorrow』
☆유학 준비생및 이민예정자는 必히 청강要!
『공개강좌: 10月 30(土), 31(日) 오후2時~4時』
◉국문속기: 김 한교수직강 (고려속기창안자)
◉영문속기: 노영민교수직강 (S·K大學교수)
※위치: 시경뒤 해남빌딩옆골목 20m (중구북창동111~1)
※버스로선: 시경앞·시청앞·남대문시장앞下車
13년간국제회의, 大學, 學院(東邦)에서英文速記의 기록및강의를 쌓은 실력과 경험으로 금반시설과 美 최신자료 (I.P.M)를 미국에서대폭도입증설하여下記와같이 인수확장 이전하여공개강좌를 개최하오니一次문의및 왕림하시어 청강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院長盧英民謹—
개 강: 11月2일
(수시접수) ㉓2723
관인 신세계속기학원
☎ ㉒3330

곤피 곤피 곤피
을지로6가
COFFEE SNACK
드디어 등장!
젊음과
낭만이 모이는
곤피에서
우리들의 대화를….
곤피
을지로예식장건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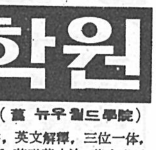


TEL. 26-7984



大学生·成人을
위한 英語
Training Center

時事英語社 直營
현대학원
(舊 뉴우월드學院)
□成人英語班(Ⅰ) TIME, Digest, 英文解釋, 三位一体, TOEFL, 基礎英作文, 基礎英文法, 英文小說, 實力基礎, 大學編入英語, Vocabulary 20,000, Word Power, 就職·考試英語, AFKN 청취
□成人英語班(Ⅱ) English 900 會話, Spoken 會話, E. F. T. 美國人會話(매주土공개강의), Screen 英語 会話(VTR 이용 總天然色)
11月 1日 개강
수시등록·접수
아침 7시~밤 9시 까지
☎ ㉙ 6626~9



현대학원은 時事英語社 直營입니다.

가을의 만상

최 상 찬

우리는 순간마다 시간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머문 자리에서 자욱히 떨어오는 광기 (狂氣) 로아 무렇게나 밟을 새우고 일어나 분방으로 나온 아침, 처음 만나는 이가 다정한 얘기마도 걸어온다면 조금은 싱그러운 날이 될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이 서운일이 아닌 것 처럼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 또한 서운일이 아니다. 그저 자글구 때한 일들의 넋들을 도나 끌어 놓지게를 헤맸어 못 목록 떠서 물어가는 모비를 건져본다. 스스로 사고 (思考) 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내부에 성곽을 쌓고 무엇인가를 한없이 생각할 때 하늘은 더욱더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가슴 밑바닥에 조용히 고여 흘기시작 하는 그리곤 천천히 끔틀거리다가 이윽고 가슴을 짐떵하고, 온갖 핑조를 부려대는 그 지독히 자연스럽게 시동하는 바람에며 뒤 나는 한없는 두려움을 찾고, 그방권의 하나로 어둠이 자욱히 눈도는 시간에 가만히 심에 대한 경 (情) 을 모은다.

그리움이 슬피서 피어난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나리는 시간이면 떠나가서 다시는 못올 사넬의 나뭇잎 펴고 피상에 감겨 본다. 꽃 속에서 포실포실 떨굴도는 화폰 (花瓣) 을 생각하고, 은하수 강이 깊이에 꽃씨를 뿌려 아무도 알수 없는 나만의 꽃도 피워본다. 그러다가 문득 자욱하게 잠려오는 졸음 속에서 서서히 그것에 매처하려는 노력 사이에 짜기인세 버둥거린다. 때때로 기억의 늪가를 끌아다니며 신비의 노력 소리를 들어도 보고, 파악이는 심장의 소리를 느끼고 감짝 놀랜다. 그리고 의식의 결전결이 빈거지면 나를 조이하고 있는 생활의 소용들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앞시 의식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지 나는 시간이 이처럼 흘러가는 모비를 건져본다. 스스로 사고 (思考) 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내부에 성곽을 쌓고 무엇인가를 한없이 생각할 때 하늘은 더욱더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가슴 밑바닥에 조용히 고여 흘기시작 하는 그리곤 천천히 끔틀거리다가 이윽고 가슴

한 꼼상과 무수한 세장의 장심에 남은 자욱들은 우리들의 피부 위에 한없이 연륜연륜하게 덮려붙어 있다. 어디를 가나 부착되는 저 견고한 건물들은 우리를 포용할 수는 없는거. 화폴학 소리를 지르고 조금씩의피폐와 불안감을 한 거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세계는 모두폐쇄거리밖에 없다.

그 폐쇄거림은 기꺼함을 받후 (反顧) 하면서부수한 소음과 어쩌신한 이름 속에 파묻혀가 셀렘 한없는 실의 (失意) 를 건져올리곤 한다.

역사의 생성 이전과 이후가 밟붙어 공존하는 소울, 우리의 앞길은 이룰수 없는 피폐의 미의식 (美意識) 을 찾고 늘 우리에게 아물다운 삶을 가꾸게 할 수는 없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공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등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지침 (指針) 을 던져준다.

그러나 두개의 거리감속에서 서로 엉킨되어 오는 부정의식 정의이 우리들구속하는 일이 피하하다. 그 밑 고정관념 (固定觀念) 을 부수어 버려야겠는데, 의식의 밑바닥에 잔존 (殘存) 하는 찌꺼기가 엉청나게은 찾고 있어 달라붙어 우리를 괴롭힌다.

수시로 우리는 나와 잔계하는 이웃들의 안부 (安否) 를 알아야할 필요를느끼고 가슴을 떨면서 오란스레 쉬정대는 시간을 의식하며 모서리마다 묻어나는 내일 (內觀) 을 암제쉬 한다.

풍요롭기만했던 유년시절을 쉬뢰와 보며, 소꼰때며 쉬를 간직함히는 어른들의 가프림 속에서 나는 이일게 자라왔던 것이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전질 만들 드러내고 선 생존 (生存) 의 아름을 도려내며 재전쉬인 문제에 의해 무엇인가를 잡아쉬고 쉽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쉽게 가는 길이 눈에 선함에도 수많은 유혹이 발을 고통으로 쉬쉬어 옴니다.

본불린는 우리의 자랑가운데 요긴한 요소 (要素) 들이 날아달아야 우리는 다이쉽 수 있다. 우리가 가 밟은 그 산함의 빛밥 (光) 을 우리의 모든것을 집리하고 내부에 접은 것을 키워야 한다.

<부여대학원 · 1>

제25회 국전 개성있는 작품이 아쉽다

대담: 이 경 성

<미술평론가>

○…제25회 가을국전이 지난 10월 2일부터 31일까…○ ○…지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국…○ ○…전의 총응모작품수는 1643점이었는데 이중 입…○ ○…선작은 1부가 190점, 3부가 73점, 총 263점으…○ ○…로이는 지난해 가을국전과 비교해볼때 70여점…○ ○…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미술평론…○ ○…가 이경성 (홍익대) 교수와 대담을 갖고 국전…○ ○…을 중심으로한 국내미술계의 동향과 국전 자…○ ○…체의 성격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

—이번 가을 국전에 입상된 작품들의 수준을 어떻게 어떻게평가하시는지요?

『입상작품의 수준은 그리높지 않은 그만그만한 작품들이었어요. 개성있는 작가가 드물었다는것이지요. 결점이 적은 작품일수록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개성을 투영이 나타내지 못하는 작품이 나오게 돼요. 소위 국전스타일이라는것인데요. 국전에서 입상할수 있는 경향의 작품을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단은빨리없어져야돼요. 우리화단의 자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지요.

—구상 (具象) 부문에 있어서 주제들이 매개 비슷하고 또 내부 사실적인 계열에만 치중해있다는 경이 있는데….

『작가는 항상 생활의 순간순간, 즉 생활의 공간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눈이필요합니다. 그리고비구상 (抽象) 계열의 표현기술등장상에 도달했다고 봐요. 그일지만 아이디어의 개발이나 생활의 리얼리티개입이 부디기 때문에 통속적인표현에 그치고 말다. 참신하고 날카로운 맛은 없고 작품에서 노리한 인상음준다는 경이지요. 일종의 노파련상이라고 할까요. 표현양식에 있어서의 참신하고 날카로운 맛은 개인마다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개성의 차이에 따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개성의 특극적인 표현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색마음운동에 관한 계열의 작품이 자주 눈에 띄는데 이러한 점을 어떻게 보십니가?

『이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않아요. 예술가의 사회참여는 그리이스 시대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시대의 현단에 서서 리얼리티가 부족인지를 발견하여 민중들에게 제시하여 주는 예술가를 말합니다. 다만 아쉽다면 이러한 작품들에서 볼수있는 일관적인 소재보다는 눈에띄지않고 있는 타양한 소재를 발굴해서 파묵에 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서예와 조각에 대해서말씀하신다면….

『조각에서는 타양한 변화가 추구되어 왔어요. 그러나 볼륨 (volume) 이나 매스 (mass) 의표현에 통한시하는 것이아쉽군요. 이점은아카데믹한표현을 떠나서 우선의 세계로 향하려는 태도인것 같아요.

서예부문에 있어서는 별로할 말이 없읍데요. 심사과정에 있어 이번 국전의 최대요점을 놓겠어요. 전에 국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려있는 신사위원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편입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파밭이 신한 서예단이에서이번의 입선작품수를 지년보다 더욱 줄인 것은 고무지인 일입니다.』

—그리고 중앙과 구상부문에서 소수 대가 (大家) 들의 작품을 투배 화가들이 많습하고 있다는 경이 있는데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듯 해요. 전통은 서서히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승예술의 백두리를 넘어날수는 없지요. 답습하는 수에 서서히 자기 나름대로의 취향에 맞게 개입할수도 있는 것이지요.』

—작가들이 사용하는 재료에 있어서는 어떠한가요?

『전보다는 재료의 사용이 다양해졌지만 재료의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수입된재료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지요. 재료의 국산화가 안되고 있음이우리의 미술발전을 늦추는요소가 되고 있어요. 좋은재료가 있어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효과를 빚보는 작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재료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입재료에 대한 면세가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국전운영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년기에 걸어온 우리화단을 이제 자율적으로 지금을 운영한수가 있어요. 국전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지금의 국전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전을 개설하는 기관을 국민현대미술관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설과 심리고부수작가를 지원하는 동의입유 하면서 한 나라의 미술을 폭넓게 펼치는 것이죠. 그렇이 한되면 자선의 방법으로 지금의 국전기구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즉 동양화·서양화를 구상·비구상으로 나눈 것을 철폐하고 동양화·서양화·조각의 세부서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심사위원을 두는것이지요.

정부의 지원하에 국전이 개최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술이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국전은 해체하고 정부는 여기에 지원하는 기관을 국민현대미술관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설과 심리고부수작가를 지원하는 동의입유 하면서 한 나라의 미술을 폭넓게 펼치는 것이죠. 그렇이 한되면 자선의 방법으로 지금의 국전기구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즉 동양화·서양화를 구상·비구상으로 나눈 것을 철폐하고 동양화·서양화·조각의 세부서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심사위원을 두는것이지요.

정부의 지원하에 국전이 개최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술이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국전은 해체하고 정부는 여기에 지원하는 기관을 국민현대미술관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설과 심리고부수작가를 지원하는 동의입유 하면서 한 나라의 미술을 폭넓게 펼치는 것이죠. 그렇이 한되면 자선의 방법으로 지금의 국전기구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즉 동양화·서양화를 구상·비구상으로 나눈 것을 철폐하고 동양화·서양화·조각의 세부서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심사위원을 두는것이지요.

비구상의 표현기술은 정상급 작가는 예리한 관찰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국전의 자율적 운영이 절실

서예부문에 있어서는 별로할 말이 없읍데요. 심사과정에 있어 이번 국전의 최대요점을 놓겠어요. 전에 국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려있는 신사위원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편입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파밭이 신한 서예단이에서이번의 입선작품수를 지년보다 더욱 줄인 것은 고무지인 일입니다.』

—그리고 중앙과 구상부문에서 소수 대가 (大家) 들의 작품을 투배 화가들이 많습하고 있다는 경이 있는데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듯 해요. 전통은 서서히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승예술의 백두리를 넘어날수는 없지요. 답습하는 수에 서서히 자기 나름대로의 취향에 맞게 개입할수도 있는 것이지요.』

—작가들이 사용하는 재료에 있어서는 어떠한가요?

『전보다는 재료의 사용이 다양해졌지만 재료의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수입된재료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지요. 재료의 국산화가 안되고 있음이우리의 미술발전을 늦추는요소가 되고 있어요. 좋은재료가 있어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효과를 빚보는 작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재료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입재료에 대한 면세가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국전운영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년기에 걸어온 우리화단을 이제 자율적으로 지금을 운영한수가 있어요. 국전에 있어서 최선의 방

신간 서평

정진권 수필집

비 닐 우 산

여기 음식도 학실하고는 박한 소시민의 배생이 있다.

소시민의 작은 생활들을 일기에다 옮기고 거기서작은 위안과 보람을 안고튼 튼해진 「비닐우산」처럼 잘 견뎌어 사는 얘기들이다.

정진권은 「푸르른 나무들에 저 붉은 해를」에 이어 두번째로 80여편을 묶어 「비닐우산」을 냈다. 그의 저작상을 1집에, 동년 학수를 2집에, 가족에를 3집에, 인생에의 권상을 4집에, 교육전을 5집에 차임새있게 배열했다.

일부를 제하곤 그는 전신노출로 편련하게 자씩있다. 그의 코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를 특자도 그의 가족 구성과 이력서는 필히 내다본다.

그의 이번 수필집엔 네체로 세가지의 골격으로 짜여졌다. 하나는 작은 평복에 감사하며 성실·겸손한 소시민의식, 하나는 동년을 반추하는 회억의 미, 하나는 어느 사회에 참여한 구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예절이다.

그의 회억하거만 분수대로 사는 소시민의 순박한 역량이 비치고, 거기서 찾는 생명의 진미가 번득인다.

「제사에 갔사하면서」 (제이의 시) 비록 「부엌에서 독욕」 (내가 살면 겁들) 이나 하고 기껏 「회색 머플이 입고왔다」 (양복바명) 는 그의 즐거움이란 거우 「집집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짜장면) 이나 「폐지 속발에 걸떠기」 (폐지고기는) 그리고 「드즌한 폐지고기 김치찌개」 (또오 여전) 를 먹는 정도지만, 가끔 「사쯤이이에게 약간의 돈을 좀 빼의 기쁨」 (명복유사) 과 「불쌍한 우산으로 아이들의 잔비를 가리는」 (비닐우산) 그런 보람으로 싱겨.

그렇게 「바구며 만년필」 (소지품집경) 이나 만족해하는 저자는 「부엌한 비닐 벽계쥐로 흐르는 물방울의 청방림」 (비닐우산) 을 잔미하면서 「가냘픈 영혼」 (영등기) 에 삼라.

그리고 「못나긴 혈이도 가장인지라」 (목욕탕에서) 「대동강 철교처럼 얼드린 가장의 등에다 아내가 피보는 시원한 수뜻물」 (욕서기) 을 맞으며 「부주접에서 먹다 남은 방풍을 싸다가 아이에게주」 (소지품집경) 거나 「부뚜지어를 한 말을 안고 함박뗘 뽑고 싶다」 (물욕아이) 는 자세로 「비좁은 버스에서 아내가 나에게 타가도는 것이 싫지 않다」 (아이품경지) 는 사방으로 「전차의 파란 스파크」 (소나기한줄기) 가 보고싶어 전차를 놓쳤듯이 생활에 넋을 놓고 있다.

한편 그는 「여편 어선생이 내 부뚜막에 빨간 약을 칠해 주는 꿈」 (운동회) 를 회상하면서 「노란눈 솔가락으로 노랑빛 경어넣욕」 (내가 살면 겁들) 이나 하고 기껏 「회색 머플이 입고왔다」 (양복바명) 는 그의 즐거움이란 거우 「집집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짜장면) 이나 「폐지 속발에 걸떠기」 (폐지고기는) 그리고 「드즌한 폐지고기 김치찌개」 (또오 여전) 를 먹는 정도지만, 가끔 「사쯤이이에게 약간의 돈을 좀 빼의 기쁨」 (명복유사) 과 「불쌍한 우산으로 아이들의 잔비를 가리는」 (비닐우산) 그런 보람으로 싱겨.

그렇게 「바구며 만년필」 (소지품집경) 이나 만족해하는 저자는 「부엌한 비닐 벽계쥐로 흐르는 물방울의 청방림」 (비닐우산) 을 잔미하면서 「가냘픈 영혼」 (영등기) 에 삼라.

그리고 「못나긴 혈이도 가장인지라」 (목욕탕에서) 「대동강 철교처럼 얼드린 가장의 등에다 아내가 피보는 시원한 수뜻물」 (욕서기) 을 맞으며 「부주접에서 먹다 남은 방풍을 싸다가 아이에게주」 (소지품집경) 거나 「부뚜지어를 한 말을 안고 함박뗘 뽑고 싶다」 (물욕아이) 는 자세로 「비좁은 버스에서 아내가 나에게 타가도는 것이 싫지 않다」 (아이품경지) 는 사방으로 「전차의 파란 스파크」 (소나기한줄기) 가 보고싶어 전차를 놓쳤듯이 생활에 넋을 놓고 있다.

한편 그는 「여편 어선생이 내 부뚜막에 빨간 약을 칠해 주는 꿈」 (운동회) 를 회상하면서 「노란눈 솔가락으로 노랑빛 경어넣욕」 (내가 살면 겁들) 이나 하고 기껏 「회색 머플이 입고왔다」 (양복바명) 는 그의 즐거움이란 거우 「집집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짜장면) 이나 「폐

알 림

▲원고료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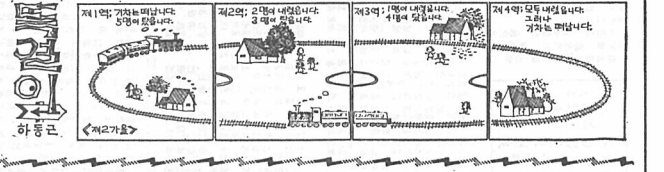
교수및 외부인사: 1매당 450원
학 생: 1매당 200원
지 급 처: 의대신문사 (본관 322호)

▲수습 컷기자 모집

자 격: 1~2학년 남·여
제출서류: 만화 (4~8컷) : 4매
만평 : 3매

마 감: 11월12일
제 출 처: 본관 318호 (의대학보)

외대학보



연재단편소설 ④

塔

임 진 호

<어디라…>

—바람이 부는 날, 탑은 배가 된다. 어수와—

지난 해를 되돌아 보면 이 부산 한 번 보러 이렇게 두 번이나 오게 될지는 수만은 뜻밖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이맘때 이 부산 항구에 오게 되기까지 나는 수수께끼 같은 이 어떤 해를 보내고 있었다. 그 때 나는 그 수수께끼 같은